

메일 상임활동가

가장 추운 달인 1월도 여지없이 뜨겁게 보내고, 이제 2월을 맞았습니다. 광장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광장에 나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열기는 서로를 데우기에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편으로는 극우세력의 준동이 심화하고 있고, 참사와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평소처럼, 동시에 이 유난한 시절에 대항하느라, 더욱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만 같아, 좀 더 오붓하게 안부 건네고픈 마음입니다.

직접 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마침 2월에는 한노보연 총회가 있지요. 다른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면 연구소와의 만남을 선약으로 꼬옥 정해두시고, 그날은 오랜만에 얼굴로 만나 뵈어요. 연구소의 새로운 중장기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고, 연구소의 새 식구가 된 신입활동가, 신입회원님들도 힘껏 환대해 주시어요.



일시 :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공공운수노조 / 온라인 병행

한노보연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타블로이드지 '윤석열 퇴진시키고 평등으로'를 매주 발행해 지역 광장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해남,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 광장에 나서면 '평등으로' 신문을 찾아 읽어주세요) 평등에 대한 희망,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요광장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도 꾸준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네트워크의 자리 곳곳에서 연구소의 기운이 느껴질 거예요!

저는 앞날이 좀 막막하다 느껴질 때면 이 노랫말을 흥얼거리곤 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한숨 쉬고 절망하지 마.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

2년 전 연구소 20주년 행사에서 다함께 부르며 알게 된 지민주님의 '길 그 끝에 서서'입니다. 개연성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새 봄, 새 길을 우리가 내뿜시대! 여럿이 걷고 또 걸으면 어느새 길이 나 있겠지요.